

1. 자연환경에 따른 전통 식생활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전통 식생활은 사용된 자원이 우리나라의 기후나 지세 등 자연환경에 알맞게 다양한 변천을 거듭하며 발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식생활 자원의 공급에 큰 영향을 주어 전통 식생활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걸쳐 있는 비좁은 반도로서 중국과 일본의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대륙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일본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런 경향은 식생활 자원의 전래·유통 과정에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북쪽과 동쪽이 높고 산이 많은 편이며 서쪽과 남쪽은 전체의 5분의 1 정도의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으로, 동서남북의 지세나 기후 여건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전통 식생활 자원의 특성이 다르므로, 각 고장의 향토식품 및 음식이 독특하게 형성되어왔다.

또한 대륙성 기후의 영향 아래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역에 위치하여 온화하며,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는 일조시간이 길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므로 벼 재배에 적합하다. 그리고 일조량이 많고 건조한 다른 계절에는 밭작물의 성장이 잘되어 곡류·두류 등 잡곡류의 재배가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무·배추·상추·고추·호박·고구마·감자 및 기타 채소류 등의 외래작물 또한 적응이 잘돼 재배가 용이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 이래 철기시대까지 곡류 중심의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쌀·조·피·기장·두류·소맥(밀)·대맥(보리)이 주된 농산물로 자리잡았고 채소와 과일 문화가 뒤이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무렵부터 쌀·보리 등의 곡류를 주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채소를 부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래 협소한 반도이며 산악지대가 많고 평야지대는 좁아 식량자원의 생산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하여 해방 전후의 궁핍했던 식생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주된 식생활 자원인 곡물 중심의 농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개간사업 또는 간척사업으로 농지를 늘려가고 농업기술연구 등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곡물 자급률은 점차 높아져 1964년에는 104.7% 였다. 그러나 그후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등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면서 쌀생산이 감소하고 사료 곡물의 수입 증가로 곡물의 생산이 감소되었다. 이에 자급률이 해마다 떨어져 1991년에는 37.5%, 1993년에는 33.8%, 그리고 1994년에는 27.7%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산물 증산에 힘쓰기보다는 공업의 발전이나 수출에 매달려 그 결과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넓은 자연초지가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목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축산물로는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기 어려웠다. 다만 산악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부 수렵활동과 각 가정에서 꿩·노루·산돼지·소·말·개·돼지·염소·양·닭·오리·거위 등을 사육하여 동물성 단백질의 보충은 물론, 의례용 음식의 준비를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냇물에서 얻어지는 민물 생선과 패류 등의 수산물은 독특한 향토음식을 형성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하나로 큰 기능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각종 폐수 및 생활하수로 하천이 오염되어 이들의 활용은 극히 어렵게 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육상에서의 식량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수산자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동쪽 해안선은 단조로

우며 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남쪽과 서쪽 해안선은 굴곡이 많고 무수한 섬이 산재하여 간만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환경은 김·미역 등 해조류와 굴·조개 등 패류가 풍부하게 생산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으로, 우리 민족에게 단백질 이외에도 요오드나 칼슘 같은 무기질과 각종 비타민 등의 좋은 영양 급원이 되는 해산물을 많이 제공해왔다. 그리고 삼면의 바다는 해수온의 차이로 각 지역마다 어족자원이 다양하여, 동해에서는 명태가 서해에서는 조기 등이 많이 잡힌다.

그런데 이 해산물을 마구잡이로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해산물조차 점점 고갈되고 있다. 간척 사업에 의한 해수면 매립 그리고 각종 기름유출사고와 바닷물 온도 이상변동으로 인한 적조 등의 여파로 바다 또한 점점 오염되어 황폐화되는 실정이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어장인 바다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 식량자원의 보고로서, 깨끗이 보존하고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통감하여 환경보호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전통 식생활 자원은 자연적인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으나, 인위적인 슬기와 노력으로 오염되어가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이어서 우리의 자연환경에 맞게 우리의 것으로 적응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각종 기술의 발달은 자연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기후·토양에서나, 그리고 계절적인 제약 없이 농·축·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의 전통 식생활 자원을 현대화하는 일도 커다란 과제이다.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전라도는 서남해의 바다에서 나오는 풍부한 해산물과 기름진 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높고 낮은 산야에서 채취되는 각종 산나물들이 풍부하였다. 따라서 예로부터 맛깔스럽고 넉넉한 음식으로 꽃피우는 자랑스러운 식생활 문화의 전통이 전해져오는 지역이다.

전남 동부권의 중심부로 급성장하고 있는 순천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고, 중부지방보다 보름 정도 앞서 봄이 오기 때문에 농사가 잘되는 전래의 농업지역이다. 이러한 기후의 영향 아래 크고 작은 물길들(석현천·옥천·이사천)이 순천만으로 흘러들면서 펼쳐지는, 기름지고 넓은 순천평야 및 도사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외에도 순천만의 풍부하고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조계산·난봉산·비봉산·봉화산 등 주변의 여러 산야에서 채취되는 귀한 산나물 등의 식생활 자원이 풍부하다.

즉 일제시대에 천석꾼 이상의 부자가 스무 명 정도나 될 만큼 지주가 많았던 순천 인근 지역은, “이 지방 사람은 풍성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한다.”고 『통국여지승람』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아도 식생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문화가 넉넉한 살림살이를 바탕으로 발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식생활 자원 유통에 도움을 주는 도로와 철도는 한국전쟁 무렵까지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기술적 빈약함 때문에 사업에 진전이 없다가, 1962년에 추진된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순천지역 인근의 도로사정도 많이 좋아졌다. 즉 1973년 11월에 동시 개통된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의 2개 노선이 통과하고 그 이외에 국도와 지방도 그리고 군도 등이 펼쳐져 서울과 여수, 부산과 목포지역을 연결하면서 순천지역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순천지역의 여러 가지 식생활 자원들이 빠르고 쉽게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00년 11월에 경인철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된 이후 순천지역에서는 1903년 여수~광주 간 철도가 완공·개통되었다. 1936년 10월에는 전라선(이리~순천)이 개통되어

호남선과 만나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남북의 전라선과 동서의 경전선(서부)이 순천지역에서 만나 전남 동부의 주요 교통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식생활 자원 유통에 큰 몫을 해왔다. 이처럼 순천지역은 편리한 교통 여건을 발판으로 광양·보성·여천 등의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농산물 이외에도 해산물 및 임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해왔다. 그리하여 풍덕동에 자리잡은 농산물 집하장에는 계절에 따라 제철 식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거래되고 있어, 순천은 전남 동부권의 식생활 자원 유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농·축·수산 기술의 발달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전통 식생활 자원의 차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지역간의 식생활 문화의 상호교류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 특유의 전통 식생활이 점차 그 빛을 잃어간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식생활 자원은 오랫동안 순천지역의 자연환경에 알맞게 적응되고 활용되어온 것이므로, 지역민들간의 통일성이나 일체감 형성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상들의 지혜가 살아 있는 전통 식생활 자원을 아끼고 지켜서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하는 우리 세대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길만이 전통 식생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길이라고 본다.

다음은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축·수·임산물의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살펴보고, 미래의 식생활을 전망해보고자 한다.